October 2026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 213

01 국제교류원의 칼럼

○가고시마 여행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쉬 쿼이 (중국출신)

○중추의 단란한 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쉬 쿼이 (중국출신)

02 지사의 움직임

○가고시마 위스키 트레일 협의회에 방문하였습니다.(9 월 9 일)

○사츠마 스튜던트 파견사업 참가자가 방문하였습니다.(9 월 10 일)

○가고시마 기온무츠이회 창립 25 주년 기념식전·축하회에 출석하였습니다.(9 월 13 일)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묘엔지 참배(묘엔지 마이리)(10 월 24 일~10 월 25 일)

Coming UP!【2026 년 11 월, 12 월 이벤트 정보】

01 국제교류원의 칼럼

○가고시마 여행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쉬 쿼이 (중국출신)

어느새 가고시마현에 온지 6 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연수로 교토와 시가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가고시마를 둘러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버 위크」 연휴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부스키시와 사츠마 센다이시에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에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기묘한 여행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부스키에서 「이치고 이치에」

이번 여행은 가고시마 시청에서 일하는 중국인(국제교류원, 여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녀 외에도 가고시마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박사 유학생과 중국문화를 좋아하는 중일 혼혈 친구도 참가했습니다. 저희는 첫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부스키로 향했습니다.

가고시마 중앙역에서 이부스키역까지는 전철로 약 1 시간 걸립니다. 솔직히, 이 한 시간의 시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열차가 푸른 녹음 속을 달리자 마치 녹색 터널을 달리는 듯한 풍경에 홀린듯이 눈을 빼았겼습니다. 도중에는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구간도 있어, 마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장면처럼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저희는 신이나 어느샌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전철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가사키현 ALT 와의 사진

제 앞에는 서양인 남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똑같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행 분위기에 너무 신난 나머지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고, 놀랍게도 그도 저와 같은 JET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일본에 온 나가사키현의 ALT(외국어 지도 조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 전국 47 도도부현을 전부 가보는 것이 목표로 지금까지 8 개의 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혼자 이부스키를 관광하러 왔다고 하며 저희가 방문 할 예정인 관광지와 겹치는 곳도 있어 저희는 그를 흔쾌히 일행으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여행의 멤버는

한 명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부스키역에서 버스 티켓을 구입하고, 처음으로 향한 곳은 나가사키바나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유명한 「사츠마 후지」인 가이몬다케였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과 함께 당당하게 솟아있는 이 모습은 '진짜 후지산'에도 지지않을 정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라시마 타로와 거북이의 동상 앞에서 소원을 빈 후 저희는 천천히 해변가를 산책하고, 자신만의 「용궁」을 찾으러 다시 나섰습니다.



▲가이몬다케의 사진

나가사키바나 등대의 밑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후 중일 혼혈 친구의 소개로 가까운 곳에 있는 플라워 파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지개를 저희가 반겨주었고, 평소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진귀한 식물들을 구경한 후 망고 카레를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놀라움의 연속인 체험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에 방문한 것은 유명한 「다마테바코 온천」입니다. 노천탕에서 동중국해를 바라보며 온천을 할 수 있어 하루의 노단함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가사키바나와 플라워 파크▲



▲망고 카레

사츠마센다이의 줄다리기 대회

연휴 두번째 날, 저희 일행은 북쪽에 있는 사츠마 센다이시로 향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사츠마센다이에서 개최되는 큰 줄 줄다리기의 박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만, 역에서 내린 순간부터 벌써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제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줄을 엮고 있는 모습

마침 동네 사람들이 줄다리기에 사용할 큰 줄을 엮고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아침부터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작업을 시작해 전체 길이 365m, 무게 약 7 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줄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해가 저물자, 시오타 지사의 인사와 함께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지역 단체장들이 그 지역의 옷을 입고 상반신을 드러내고 차례로 무대로 나옵니다. 규슈남자다운 용맹한 모습에 기합이 들어간 참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줄을 들어올리는 광경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회장 전체가 열기와 흥분에 둘러싸여 축제는 크게 무르익었습니다.


▲줄다리기 대회의 모습

이 행사를 보며, 지역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줄다리기 줄처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힘을 합치자 평소에는 조용한 거리에도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 저희도 땅에 떨어진 줄의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악운을 쫓고 행운이 찾아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의 기념품으로 소중히 가져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가고시마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고시마의 매력을 찾는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어떤 발견이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중추의 단란한 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쉬 쿼이 (중국출신)

9 월 말, 중국에서는 4 대 전통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을 기념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음력 8 월 15 일이 전통적인 중추절입니다. '중추(中秋)'는 말 그대로 가을의 한가운데를 뜻합니다. 또한 음력 8 월 15 일의 달은 다른 달의 보름달보다 더욱 둥글고 밝다고 여겨져 팔월절(八月節) 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은 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 특별한 중국의 전통 명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절의 유래

'중추'라는 표현은 중국의 고대 예법서인 『주례』에 등장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단순히 '가을의

중간 시기'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왕실에서는 달에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좋은 날씨, 그리고 나라의 평화와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위진(魏晋) 시대가 되면서 문인들은 달을 감상하며 높은 누각에 오르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宋)나라 시대에 이르러 중추절은 정식 전통 명절로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널리 알려진 '항아분월' 이야기는 중추절에 낭만적인 색채를 더해 주었습니다.

항아분월(嫦娥奔月)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에는 태양이 열 개나 있었습니다. 강렬한 햇빛 때문에 땅은 메말랐고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영웅 후예(后羿) 가 아홉 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려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의 공을 치하한 서왕모(西王母) 는 후예에게 불로불사의 선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예는 사랑하는 아내 항아(嫦娥) 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선약을 아내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어느 날 후예가 집을 비운 사이 악인이 항아에게 선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난처해진 항아는 선약을 스스로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은 하늘로 떠올라 달로 날아가게 되었고, 달에 있는 광한궁(廣寒宮) 에서 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내를 잃은 후예는 매년 음력 8 월 15 일이 되면 과일과 음식을 차려 놓고 멀리서 달을 바라보며 항아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도 후예를 따라 달을 감상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중추절에 가족과 함께 보름달을 바라보는 풍습의 기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Chat GPT 로 작성

중추절의 풍습

달맞이

중추절에 달을 감상하는 풍습은 당나라 때 크게 유행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더욱 성행하여 귀족들은 아름답게 꾸민 누각에서, 서민들은 주점이나 정자에서 달을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족들이 모여 밤하늘의 아름다운 보름달을 바라보는 것은 중추절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달에 제사 지내기

중추절은 고대의 천체 숭배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달을 향해 절을 하거나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월병 먹기

월병은 원래 달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용 음식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관련 기록이 등장하며, 명나라 시대에 중추절의 대표 음식으로 정착했습니다. 둥근 모양의 월병은 가족의 화목과 행복, 재회를 상징 합니다.

등롱 수수께끼 맞히기

중추절 밤에는 공공장소에 수많은 등롱이 장식됩니다. 사람들은 등롱에 적힌 수수께끼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석류 먹기

중추절 무렵은 석류가 제철인 시기입니다. 석류는 많은 씨앗이 서로 모여 있는 모습 때문에 가족의 단합과 번영 을 상징합니다.

금목서 즐기기

중추절 무렵에는 금목서 향기가 짙게 퍼집니다. 중국에서는 이 시기 금목서 꽃으로 만든 계화주(桂花酒) 를 즐기는 풍습도 있습니다.

중추절과 관련된 한시

「정야사(靜夜思)」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

举头望明月

低头思故乡

우리말 번역

침상 앞에 비친 밝은 달빛이

땅 위에 내린 서리인가 의심되네.

머리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해설

깊은 가을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인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비친 달빛을 바라봅니다. 서리처럼 희고 밝은 달빛을 보며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달을 보며 멀리 떨어진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중국 문화에서 보름달은 가족의 재회와 화목의 상징 입니다. 그래서 달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게 되며, 이것이 중국인의 대표적인 정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02 지사의 움직임

○가고시마 위스키 트레일 협의회가 방문하였습니다.(9 월 9 일)

「가고시마 위스키 트레일 협의회」 관계자 분들이 협의회 발족 보고를 위해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현내 6 개의 증류소가 연계하여 가고시마의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 소주 양조장의 기술을 활용하여 가고시마현산 위스키의 매력을 증류소를 차례대로 돌며 체험하는 위스키 트레일 등을 실시하며 국내외에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은 현산 위스키의 인지도 향상과 매력적인 관광 컨텐츠로서 위스키 트레일을 PR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고시마 위스키 트레일 협의회」 분들과 기념사진



▲위스키의 사진

○사츠마 스튜던트 파견 사업 참가자들이 방문하였습니다.(9 월 10 일)

7 월 21 일부터 8 월 3 일까지 사츠마 스튜던트 파견사업으로 영국을 방문한 고등학생 사토 유이군과 나가이 아마미양이 인솔 교원 Nobis James 씨와 귀국보고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두 학생은 「이번 파견을 통해 수업의 참여 방식에 대한 차이와 적극성을 배울 수 있었다.」,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감상을 들려 주었습니다.

참가한 두 학생이 이번 파견을 통해 앞으로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사토 유이군, 나가이 아마미양, Nobis James 씨와 기념촬영



▲귀국 보고의 모습

○가고시마 기온무츠이회 창립 25 주년 기념식전·축하회에 출석하였습니다.(9 월 13 일)

가고시마의 3 대 마츠리 중 하나인 「오기온사」의 가사호코와 미코시를 담당하는 「가고시마 기온무츠이회」의 창립 25 주년 식전 및 축하회에 참가했습니다. 가고시마 기온무츠이회의 지금까지 행보와 「오기온사」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축제를 지켜온 분들의 열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5 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오기온사」의 전통이 이어지고 가고시마의 거리들에 흥을 돋구는 축제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하는 모습



▲기념촬영하는 모습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묘엔지 참배(묘엔지 마이리)(10 월 24 일~10 월 25 일)

가고시마 시내에서 히오키시 이주인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길을 걸어서 참배하는 전통행사. 적중돌파 후 고난의 끝, 가고시마로 귀환 한 시마즈 요시히로공을 기리고, 사기를 고무시키며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가고시마 조카마치의 무사들(서민들은 메이지 이후)은 세키가하라 전투 전날 밤 음력 9 월 14 일, 왕복 40 킬로미터의 길을 갑옷과 투구를 몸에 두르고 밤새 요시히로공을 모시고 있는 절인 묘엔지에 참배를 시작합니다. 폐불훼석(메이지 초기에 이뤄진 불교배척운동)로 도쿠시게신사로 바뀐 후에도 참배는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고시마 3 대 행사로써 이어지고 있으며 인내력과 지속성의 부족을 보충한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 전통 예술의 봉납이나 무술대회, 가족들과 함께 참가하는 워킹랠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사입니다.





▲묘엔지 참배의 모습「© K . P . V . B」▲

Coming UP !【2026 년 11 월, 12 월 이벤트 정보】

◇11 월

1 일 사츠마센다이 한야마츠리(사츠마 센다이시)

2 일·3 일 오하라 마츠리(가고시마시)

3 일 야고돈 마츠리(소오시)

29 일 제 33 회 요론마라톤(요론섬)

10 월 30 일~11 월 20 일 플라워즈 오브 히카리(나가시마정)

◇12 월

6 일 제 46 회 러닝 사쿠라지마 대회(가고시마시)

5 일,6 일,12 일,13 일,19 일,20 일,24 일,25 일,26 일,27 일

크리스마스 판타지 나이트 2026 in 가노야장미원(가노야)

19 일, 24 일, 25 일, 26 일

미니 불꽃놀이쇼 크리스마스 판타지 나이트 2026in 가노야장미원(가노야)

편 집 후 기 (가고시마현 종합정책부 국제전략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낮은 덥고, 아침과 밤은 조금씩 시원해면서 가을다운 날씨가 되었네요. 일교차를 조심해서 컨디션 관리 잘 해주세요!

이번호의 국제교류원 칼럼은 쉬 씨 입니다. 중국의 중추절에 대하여 소개해주셨네요. 중추절은 중국의 큰 가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한국, 싱가포르의 가을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궁금해져, 한국과 싱가포르 출신 국제교류원에게도 각각의 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에 대하여 질문해보았습니다!
(8 월호에서는 국제교류원의 출신국의 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고시마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읽어주세요!!)

김주희(한국출신) : 한국의 충주에서는 한국 전통악기, 가야금을 만든 우륵을 기리는 우륵문화제가 매년 열립니다. 우륵은 가야금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써 충주에서 수 많은 가야금 악곡을 창작하고 제자들에게 전통음악을 가르침으로써 그 문화를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이런 공적을 기리며 한국의 전통음악과 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륵 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 월 8 일~11 일에 개최되었습니가. 기간 중에는 한국 전통음악 콩쿨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벤트가 열리고 야시장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시내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며 지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차 켈리(싱가포르 출신) : 싱가포르에서는 디파바리(Deepavali)라는 이벤트가 11 월 8 일에 개최됩니다. 이 이벤트는 "빛의 제전"이라고 알려진 힌두교의 축제로 어둠을 이겨내는 빛과 악에 대항하는 선의 승리를 축복하는 축제입니다.
당일에는 색을 입힌 쌀, 가루, 모래, 꽃잎 등을 이용해 지면에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며 축하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하여 거리 전체를 밝혀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
그럼 다음호도 기대해주세요☆彡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그외에도 전세계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종합정책부 국제전략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minami@pref.kagoshima.lg.jp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현 홍보지「현정 가와라판」

http://www.pref.kagoshima.jp/kohokocho/koushoushi/kohosi/kawara/index.html

가고시마 관광사이트

https://www.kagoshima-kankou.com/

※ 이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 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